

지역 매아리

김제시,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운영

김제시는 11일 인재양성과 주관 관련 부서 담당급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진 부시장 주재 하에 14일 수능시험이후 고3 청소년들이 수능으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기회와 취미활동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능이후 고3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진로상담 활동 강화, 맞춤형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탈선예방활동 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와 10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지원책을 논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김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무료 관람,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19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진로콘서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퓌티아, 보드게임, 워킹밸런스, 뉴티&패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고3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진 부시장은 "문화공연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테마축제

'제4회 봉동생강골시장' 성료

완주군 봉동생강골시장이 테마 축제제로 성황을 이뤘다. 11일 완주군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제4회 봉동생강골시장 테마 축제가 열려 지역주민 및 관광객 4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최동원 완주군의회 의장, 도의원과 군의원이 참여해 축제를 축하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축하쇼, 봉동생강골 스타노래자랑, 새터민 공연,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돼 주민들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겼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김장 필수 재료중 하나인 봉동의 대표 농산물 생강과 것갈 등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완주군 삼례시장 청년들에서 장업을 준비하는 청년상인들도 참여해 활기를 불어 일으켰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1-2-3 경쟁력'

완주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전북 순위에서 최상위권 기록

완주군이 경제와 도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과 전북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이른바 '완주 1-2-3 경쟁력'에 비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지역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 13.4%를 기록, 전북 1위를 달렸다.

이런 사실은 국회 윤후덕 의원(더민주, 경기 파주갑)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GRDP 성장률을 분석, 지난 9월말 발표한 자료에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완주군의 성장률은 전북 2위(6.8%)와 3위(6.7%) 지역과 비교할 때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것으로, 전국 228개 기초단체 순위에서도 24위에 랭크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은 특히 전북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21%를 기여하고 있고, 전

북 수출액의 25%와 종업원 고용의 20%를 각각 견인하는 등 지역 산업경제의 대표 도시이자 전북경제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군은 또 국토교통부의 '2019 도시대상 평가'에서 국내 거대도시들을 제치고 종합 2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을 최근 수상,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도시 경쟁력 종합 1위의 대통령상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받아, 완주군이 종로구청과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도시'라는 점에서, 완주군의 도시대상 종합 2위 수상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과 광역시구청 등의 대도시들과 경쟁해도 완주군의 도시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대상을 수상한 19개 자치단체 중

에 군(郡) 지역은 완주군이 유일했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도 군 지역으로서 4년만의 쾌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완주군은 문화자원과 향유 등 28개 문화지표를 적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놀토피아 조성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전국 군 단위 5위에서 이번에 두 계단 올라섰다.

주민 삶의 행복도와 직결되는 경제와 도시, 문화 등 3대 분야에서 최상위권인 '완주 1-2-3 경쟁력'은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잘 살려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나서고 테크노밸리 2단계 등 산단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실행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또 안전과 교통망 확충 등 주민 행복을 담은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체육 기반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진성 대둔산 미술관 대표, 완주군에 작품 기증

도판화 11점, 달항아리 3점 기탁... 군청·군의회 로비 전시 예정

대둔산 미술관 대표로 국내의 한국 도자를 알리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무이 김진성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14점을 완주군에 기탁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김 작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둔산 미술관 대표로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 이천도자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내외에 한국 도자를 알리고 맥을 잇는데 노력하고 있다.

김 작가는 완주의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대형 도판화 11점과 달항아리 3점을 기증했다. 이 중 도판화 1점은 김 작가의 배우자인 김혜정작가의 작품이고, 7작품은 작가의 소장품이다.

도판화는 도자로 구운 사각형 도판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워내는 고난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대형그림이다.



달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한 번에 물레로 만들기 어려워 위·아래 몸통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고도의 집중력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작품이다.

김 작가는 "도자에 다양한 색의 유약을 발라도 가마 온도에 따라 색의 발현 정도가 다르다"며 "나의 의지와 우연이 만들어낸 예술"이라며 본인의 작업을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13일 '푸드플랜' 소통의 장 열어

김제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푸드플랜이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김제시는 13일 오후 2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김병철 소장) 상록관에서 푸드플랜(로컬푸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자, 소비자, 학부모, 사회·복지단체, 학교급식 관계자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될 푸드플랜 여러 과제에 함께 힘을 모으고 실질적이

고 실행 가능한 푸드플랜 추진계획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시관계자는 먹거리 100년 대계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19. 6월 지역농업네트워크전북협동조합에 용역을 발주했고, 금회 주민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조사·분석한 김제시의 먹거리 실태·정책분석과 김제시 푸드플랜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핵심 실행전략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의 손으로 김제형 먹거리시스템(푸드플랜)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김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소득증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2019~2023년 5개년간의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최종 보고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발계획에는 김제 농생명 클러스터와 4대 농업·농촌 특화권역을 설정해 공간 발전 구상을 제시했으며,

미래를 위한 도약, 김제시 농업·농촌의 활력과 민족 농정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농업의 중심, 혁신된 농업 생산 시스템, 농촌융복합화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농촌사회, 새만금 농생명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신산업화, 안정된 소득, 미래의 신세대, 참여농정 체제 확보 등 4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화합·협력하여 희망찬 농업농촌 건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화합 한마당 성황리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1일 제10회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11일 '생명농업 생산의 주역, 김제 농업인의 화합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고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는 제10회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 농업인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난타공연 및 스포츠댄스 공연으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고,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다수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는 시상식이 있었다.

이후 지평선 가래떡 자르기, 각종 화합 행사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며, 농업인들이 마음의 시름을 털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하는 소중한 알찬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생활개선회가 주관하여 각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을 전시하였고, 이를 내빈 식사로 대접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의 류정기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올해도 술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여 희망찬 농업농촌을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에서 "농도인 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에 농업인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성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